

◘ 무시무시한 도깨비와 일본 사무라이 모습의 커다란 등롱

일본 '아오모리현의 네부타 마쯔리'

글·사진 **허 용 선** (여행 칼럼니스트)





● 환하게 불이 켜진 네부타가 거리를 행진하면 구경나온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한다

일본 동북부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은 뛰어난 자연 풍광과 더불어 축제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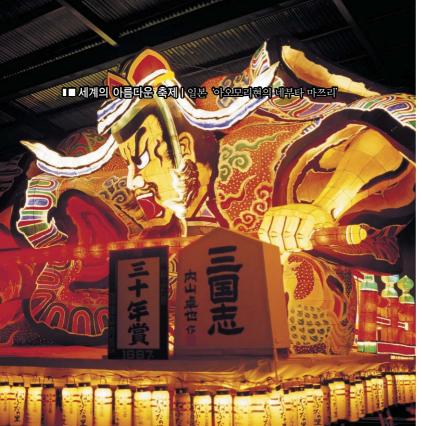
세계적으로 이름난 '네부타 마쯔리' 가 열리면 아오모리 시에는 35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온다. 유서 깊은 항구도시가 갑자기 흥분과 열기로 가득 찬 축제의 장으 로 변모하는 것이다. 7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네부타 마 쯔리의 백미는 화려한 네부타 장식수레다. 수레의 장식은 일 본의 유명한 사무라이나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소 재로 삼는다. 수레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밑그림을 그

○ 네부타 마쯔리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화려한 장식등록이다

린 후 나무나 철사로 틀을 만든다. 그런 다음 틀 위에 종이를 발라 색칠하고 여기에 화려한 인형 등록을 달면 멋진 네부 타 장식수레가 완성된다. 피리, 큰북의 독특한 음악 소리와 함께 수레들이 거리를 행진할 때면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이 연신 환호성을 지른다.

거리에는 '네부타' 라는 인형 모양의 거대한 등롱과 하네토 라 불리는 춤꾼들에 의해 신명난 축제가 벌어진다. 북소리 장단에 맞춰 시민들은 "라세라 라세라"를 외치며 네부타로 장식된 수레를 끌고 거리를 행진하는데. 전통의상 차림의 남 녀들이 3km 정도의 길을 행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축제 의 마지막 날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 놓고, 바다 위에서는 갖가지 수상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아오모리 네부타 마쯔리' 외에도 각 고장마다 독특한 축제가 열린다. 히로사키 시에서는 이 고장 특유의 네부타 마쯔리가 열리는데 "야야도 야야도!"라고 외 치는 수많은 춤꾼들과 부채 모양의 거대한 네부타 수레가 움 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부타의 앞면에는 용맹스런 사무 라이의 모습이, 뒷면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져 있다. 북 과 피리의 음향과 시민들의 힘찬 구령에 맞춰 네부타 수레 60대가 거리를 지날 때면 누구나 흥분을 감출 수 없게 된다.



○ 아오모리현의 귀신축제인 네부타 마쯔리의 기원은 신도라는 토착종교에서 유래되었다



장식수레가 거리를 행진할 때에는 북치는 고수와 춤꾼들이 등장한다



○ 흥겨운 축제 날 춤공연을 하는 모습

한편, 다나베 시에서는 교토의 기온 마쯔리를 연상시키는 대형 수례 5대가 거리행렬을 선보인다. 호화롭게 장식된 수 레 주변으로 수많은 축제 참가자들이 모여드는데, 그중 장식 수례를 끄는 젊은이들이 먼저 모여 술잔을 주고받는다. 금년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인파 로 가득한 거리로 수레가 나가면 연도에 모인 시민들의 환성 은 실로 대단해진다.

일본 북부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은 겨울이 되면 매서운 한 파가 몰아친다. 그래서인지 이곳 시민들은 짧은 여름을 못내 아쉬워한다. 네부타 장식마차가 등장하면 시민들은 여름이 곧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축제에 더욱 열광적으로 참가한다.

아오모리현에서 매년 열리는 네부타 마쯔리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축제를 즐기는 일본인의 기질과 종교적ㆍ계절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이루어진 축제로 알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축제의 나라로 불릴 만큼 전국적으로 갖가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며, 이러한 축제들은 대부분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골뿐만 아니라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의식과 잔치들이 쉴 새 없이 열리는데 여기에는 2천년 이상 일본인의 정신을 지배해 온 일본의 토착종교인 신도(神道)가 바탕을 이룬다. 일본인들이 신사(신도와 신사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를 자주 찾는 것은 자연과 신을 가까이 접하고 죽은 혼령과도 대화를 나눌수 있는 곳으로 믿기 때문이다. 아오모리현의 귀신축제인 네부타 마쯔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오모리현은 일본 북부의 독특하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고장이다. 매년 현 내의 여러 도시에선 네부타 마쯔리를 비롯해 히로사카 벚꽃 축제, 눈등불 축제, 하치노혜 풍년제같은 전통문화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네부타 마쯔리는 아오모리현은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

* 여행정보 문의 :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www.welcometojapan.or.kr (Tel. 02-777-8601)